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포가

(安東의 古家)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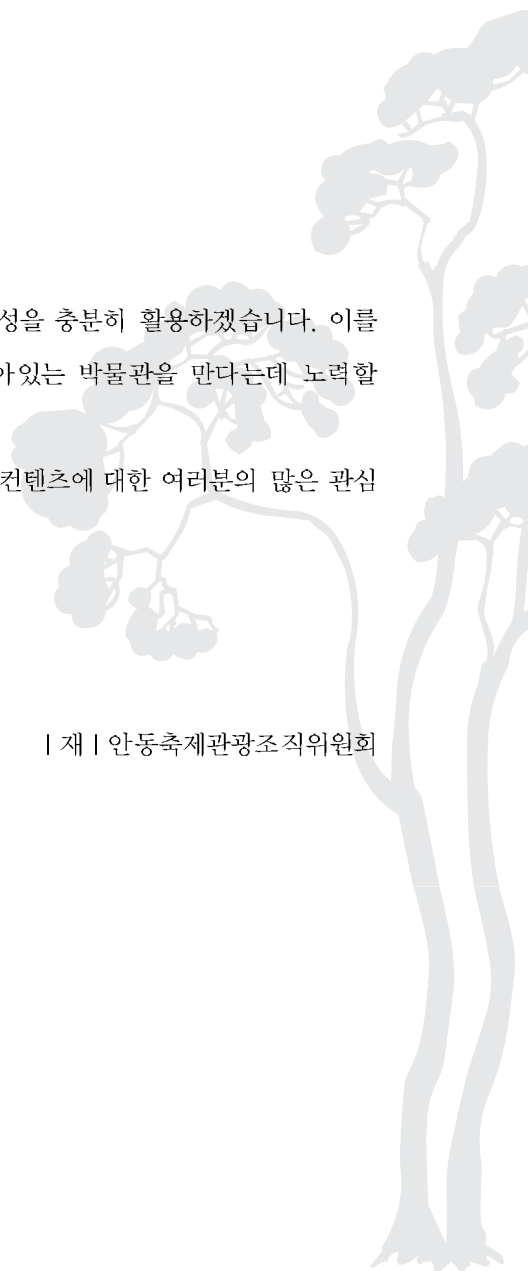
(安東의 古家)

박물사

아름다운 기와의 곡선, 마루를 밟는 느낌, 여유롭게 흘러가는 하늘과 구름, 안동의 고가(古家)에 앉으면 기품있는 풍경화 한 점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에는 285점이라는 많은 문화재가 있고 그 중에는 한 문중을 대표하는 종가, 재사, 정자 등이 수없이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고건축 문화재가 곳곳에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국의 중소도시인 안동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박물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산업이 가능하다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박물관 가운데 특히 송원각, 영모각, 옥진각, 운장각은 문중유물 전시관으로 오랜 세월 조상의 유품과 유물을 소중히 간직했던 안동 사람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문중유물전시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만들어진 수많은 목판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박물관의 도시 안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물을 통해 옛 것을 배우고 현재를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박물관이 많다는 것을 홍보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박물관들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를 통해 현대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동의 전통문화컨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간사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 재 |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고가, 현대사회로의 출현

‘집’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가장 편하고 가장 안락한 공간이 바로 집이다. 한국의 집은 대화 속에서 늘 ‘우리집’으로 이야기된다. 영어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my house’라는 개인적인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대중성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집이며 전통 시대 집의 역할이다. 특히 집 가운데서도 종가로 분류될 때에는 그 집은 종손의 것만이 아닌 그 성씨 전체가 만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남성들의 생활공간인 사랑채는 그 역할을 하는 중심공간이 된다. 특히 안동의 양반들은 내 집에 온 손님에 대한 접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양반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고 이러한 접빈객 문화는 또 다른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만들어 낸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집에서 술을 직접 만들어 재조하는 가양주와 안동간고등어 등이 있다. 이러한 음식들 이외에도 묘소에 달려있는 공간인 재실은 불천위 제사나 묘제 등에 참여하는 손님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다. 안동에서는 이렇게 내 집으로서의 공간 뿐만 아니라 손님을 위한 접대의 공간도 함께 배치하여 개인적이면서도 대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을 만들어갔다.

고건축에 있어서의 집은 자연주의사상, 음양오행사상, 풍수사상, 유교사상 등 다양한 사상을 건축에 그대로 반영하여 집이 곧 주인의 성품

혹은 주인의 철학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전통주거건축은 집을 지을 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지형에 따라 지음으로서 자연에 순응 내지 조화하려는 철저한 자연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자연을 해치지 않고 경회하며 자연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을 모든 행위의 기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축을 조영하는 데도 주변 자연에서 동떨어져 인식되어지거나 자연을 파손시키면서까지 지나치게 개발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에 파묻히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고 적응하려는 태도로 계획하였다.* 또한 우리 한옥은 한서(寒暑)의 심한 기온차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구들, 자연과 문화가 접경을 이루는 공간인 마루라는 공간적 특성과 외관상의 미간과 채광, 시각, 조명 등을 배려한 건축 의장적 특성 및 다양한 부분에서 인간, 자연,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형적인 높낮이 차를 이용하여 공간의 위계를 높이는 한국전통주거의 입면적인 특징과 결부되어 있는데 기단과 마루에 의해 높여진 내부공간은 외부에서는 폐쇄적이고 내부에서는 개방적인 공간이 된다. 전통 한옥의 방에 앉으면 밖은 훤히 보여 마당, 자연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지만 바깥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는 것을 경험한 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의 공간 뿐만 아니라 집에 설치되는 가구는 목재의 자연

* | 참고자료 | 이지연, 김주아 공저, 『한옥의 보전을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한국학술정보(주), 2007.

미를 최대한 살리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배치에 있어서도 통행 영역을 포함시키고도 50~60%의 여유면적을 두어 심리적, 생리적으로 인간의 쾌적함과 안락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현대의 관광형태가 기존의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는 문화관광(Culture Tourism)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는 세계가 단일 문화권으로 묶이는 가운데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보전하고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자 건축물인 한옥도 보전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현대인의 삶이 급격한 사회변동을 통해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여유로움을 가지기 어려워졌다. 자연과 동떨어진 생활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팽배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며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노력은 곳곳에서 보여진다. 전통 문양을 활용한 다양한 소품이나 황토방이 인기를 얻고 귀농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전통시대 예절을 교육하는 어린이 관련 상품이 성행 중이다. 도대체 무엇이 현대인들을 전통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것에 매료되어 전통으로의 귀향을 꿈꾸는 것일까? 그리고 그 전통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주거문화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교육법, 양반들의 생활모습 등 전통시대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물론 불편하고 답답하며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통사회를 대표하며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명문가 대부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시행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현재 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그 전통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깊은 상념 속에 잠기기도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안동의 전통 고가는 한옥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지자체의 노력도 있었지만 일제시대, 새마을 운동 등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며 종손, 종부이기 때문에 혹은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랜 고가의 모습을 지키고 사는 집주인들의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빛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의 기호에 맞게 화장실도 고치고 에어컨도 달았지만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의 이야기를 간직한 목재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안동의 고가에서는 오늘도 전통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

차례

발간사 / 6

고가, 현대사회의 출현 / 8

태양처럼 아름다운 훈훈한 인정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가일, **가일수곡종택**

▶ 14



명예와 이익을 멀리한 진정한 선비의 삶, **경당종택**

▶ 20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큰 산과 같은 곳, **고산서원**

▶ 30



발아래 아름다운 호수를 끌어안은, **고성이씨탐동파종가**

▶ 40



자연을 벗삼아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 **농암종택**

▶ 50



평생 청백했던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손때가 묻은 아름다운 곳, **묵계서원**

▶ 64





자연의 멋 그리고 우리 건축의 힘, **병산서원**

▶ 70



봉정사

▶ 82



예쁜 한옥이 응기 좋기, **오천군자마을**

▶ 90



옥빛 물 가득 머금은 아름다운 곳, **옥연정사**

▶ 104



종손으로서 매안(埋安)할 수 밖에 없었던 나라 잃은 설움, **임청각**

▶ 114



굽이굽이 첩첩산중 호숫가 위 아름다운, **지례예술촌**

▶ 126



부끄러움의 바위 그 올곳은 선비 정신의 산실, **치암고택**

▶ 140



산과 강을 감싸 안은 아름다운 하회마을, **하회마을**

▶ 150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향
 (安東의 古家)

태양처럼 아름다운 훈훈한
인정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 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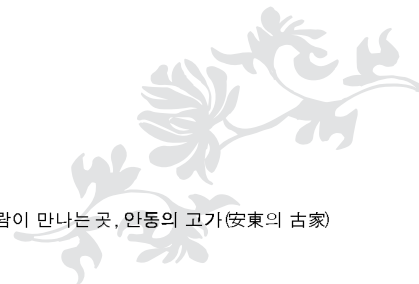
佳日樹谷宗宅





중요민속자료 제176호

가일수곡종택



가. 일. 수. 곡. 종. 택



- 소재지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9



수곡종택이 위치하고 있는

5백년동안 세거해온 동성마을이다.

안동권씨는 세종때 정랑을 지낸 권항(1403-1461)이 이 마을의 부호인 유서의 사위가 되어 그 재산과 토지를 물려받아 이곳에 정착했다.

가일의 지주(地主)집들은 추수(秋收) 때 곡수(穀數)를 아무리 박하게 가져오거나 혹 사정에 의하여 전혀 못내는 소작인(小作人)이 있어도 따지거나 독촉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몇몇 큰집들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오가는 과객들을 맞이하여 몇일씩 묵어가도록 하였으며 떠날 때는 반드시 노자(路資)까지를 주면서 적선(積善)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항상 느긋하고 훈훈한 인정으로 온 이웃이 함께 화기(和氣)가 넘쳤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의 이름을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가일(佳日)이라 하였던 듯하다.

고가옥 전통 체험을 하고 있는 수곡종택(중요민속자료 제176호)은 권보



마을의 이름을 태양처럼 아름답다고
가일(佳日)이라 하였던 듯하다.

(1709-1789)의 유덕을 추모하여 세운 집이다. 권보는 권구의 아들로 평생 도학에 전념했다. 수곡종택은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양반집으로 별당인 일지재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을 위해 마련한 서당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가(安東의古家)

가. 일. 수. 곡. 종. 택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한지공예, 천연염색, 달만들기 체험, 놀이체험,
전통예절체험, 전통문화체험 가능



가만히 하룻밤 안기고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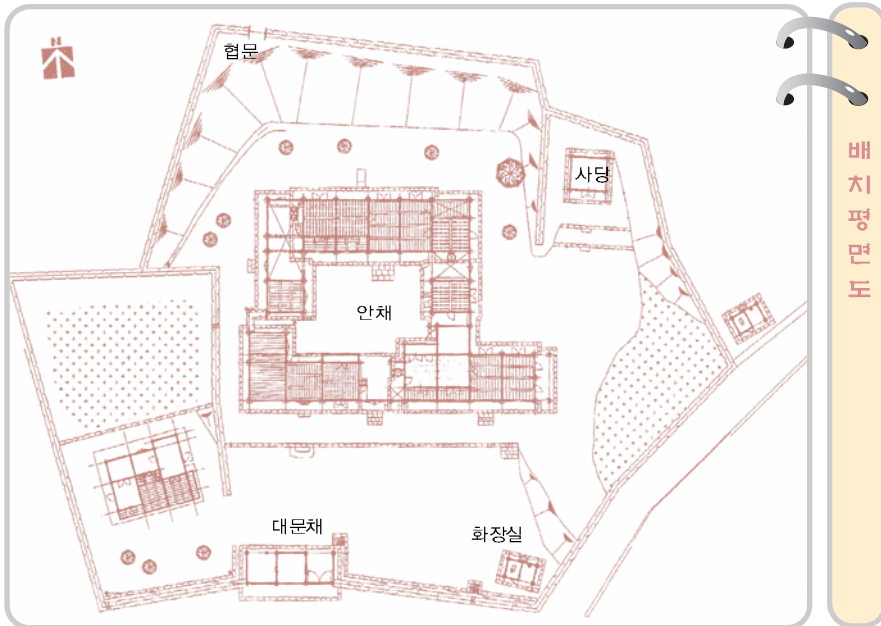
작은방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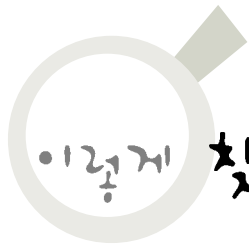
(수용인원 : 2~4명), 군불
5만원



큰방 3개

(수용인원 : 6~8명), 군불
10만원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가용 이용시

풍천면 가곡리 마을의 북쪽에 위치

대중교통 이용시

안동초등학교 정문앞에서
76번 시내버스로 50분 가량 소요후 도보로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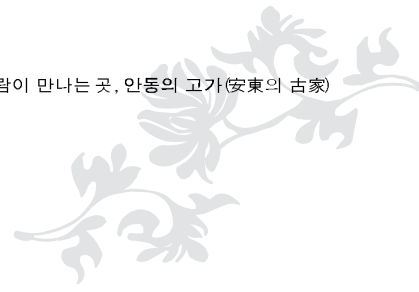


敬宗堂

명예와 의의의
멀리한
진정한 선비의 삶

敬宗堂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가(安東의 古家)



경당종택

경.당.종.택



- 소재지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204번지
- 전 화 : 054-852-2717



경당 종택을 찾아가는 길은

34번 국도를 이용한다. 시가지지를 벗어나 늦다리 밭기 전설을 가진 솔밤다리(송야교)를 만나게 되고 이 다리를 건너서 우회전하면 천등산 봉정사로 향하는 길이다. 입구에는 권태사묘 입구, 김태사묘 입구 등의 표지석을 만나게 되는데 이길로 진입하면 안동 권씨 북야파 파조인 권수홍의 신도비와 묘단, 단계 하위지 선생이 제향되어 있는 창렬서원, 경당 장흥효 선생 관련 유적지인 금계의 광풍정과 제월대,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택과 유물전시관인 운장각, 안동 삼태사의 묘소, 안동 권씨 능동재사, 풍산 류씨 송실재, 안동 김씨 태장재사, 송암 권호문 선생이 학문을 장군하던 관물당 등의 지정문화재와 경당 장흥효·백죽당 배상지·용재 이종준을 배향한 경광서원, 경당 장흥효 선생이 강학하던 봉림정사, 안동 장씨의 시조인 장정필 공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한 성곡재사, 구한말 영남을 대표하던 학자인 서산 김홍락 선생의 강학 장소인 소계서당, 고려 예의판서 권인 공의 묘소를 보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마련한 송파재사, 철계재 장세규 공의 고택 등의 비지정문화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경당 종택은

서후면 사무소가 위치한 삼거리에서 왼쪽 명리로 접어드는 길에서 100m 정도 나아가면 다시 오른편으로 길이 갈라지는데 이 곳에는 장태사신도비, 안동 장씨 성곡재사 입구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이 곳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 오른편으로 경당 종택이 보인다.

“사람이 도리를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퇴계 이황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학파는 퇴계의 4대 문인으로 대표되는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월천 조목, 한강 정구 선생을 중심으로 문파를 만들어 낸다. 이들 중 학봉 김성일의 학통을 이은 경당 장흥효 선생은 그 외손인 존재 이취일, 갈암 이현일 형제로 이어지면서 다시 갈암의 아들인 밀암 이재, 밀암의 외손인 대신 이상정, 소산 이광정으로 이어지고 대신의 외증손인 정재 류치명, 학봉의 후손인 서산 김홍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영남학파의 학통을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장흥효이다. 장흥효 선생은 수많은 제자와 문인을 길러내어 영남 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당 선생의 호(號) 또한 명예와 이익을 멀리한 진정한 선비의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머리맡에 경(敬)자를 크게 붙여놓은 데서 유래한다. ‘경(敬)’이란 글자는



마당한쪽담장 넘어 탕자나무가 일단 눈길을 끈다

경.당.종.택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비롯해 퇴계 등 대학자들이 평생 공부의 방법으로 썼던 일종의 상징이다. 이렇듯 경당 선생은 벼슬보다는 학문 연구에 유난히 욕심이 많았던 조선시대 학자로 대표된다.

장흥효는 겸허하게 물러나 자취를 감추는 것을 삶의 신조로 삼고 임천(林泉)에 숨어살며 세상사를 끊었다. 평소에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바꾸고서 가묘를 배알하였다. 이어 주자화상(朱子畫像)에 절한 후 서실에 들어가 종일토록 꺾끗이 앉아 서가에 꽂힌 여러 책을 벗삼아 생각에 잠기었다. 생각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밤이 다하도록 연구하였고 깨달음이 있으면 비록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그것을 글로 써두거나 책자로 엮어 두어 앞으로 더 연구할 수 있게 자료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날 있었던 말이나

경당고택은 원래 광풍정이 있는 제월대 앞에 있었는데 50여 년전에 지금의 서후면 성곡리로 옮겼다고 한다.



경당 선생은 벼슬보다는 학문 연구에 유난히 욕심이 많았던 조선시대 학자로 대표된다.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적어 두어 언동에 허물이 없게 하였으며 공부한 내용 또한 늘 점검하여 학문에의 향상을 기하였다. 거처의 남쪽에 소나무·잣나무 등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 제월대(霽月臺)라 이름 하였다. 학습을 하면서 날마다 어린아이들(冠童)과 더불어 이 대 위에 노닐며 예를 가르치고 노래를 읊조리는 등 소연자적(瀟然自適)한 연후로 돌아오곤 하였다. 이와 같이 50여년을 지내는 동안 발자취를 안동부내로 들인 적이 없으므로 이웃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한편 그는 청빈하게 살아 한 대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마저도 거르는 날이 잦았으며 도리어 이를 즐겁게 여기며 개의치 않았다.*

사당에서는 장흥호 선생을 불천위로 모시고 있다. ★



경.당.종.택



광풍정: 장홍효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



종택 입구

퇴계 이황 선생을

정점으로 하는 영남학파는 대체로
퇴계 4대 문인으로 꼽히는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월천 조목, 백담 구봉령 선생을 중심으로 각기 문파를 이루면서 사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중 학풍과 맥이 끊어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지면서 최대의 학파로 성장한 것은 학봉 선생 계열이라 할 수 있다. 그 계보를 보면 학봉 김성일의 학통은 경당 장홍효로 이어지고 경당은 외손인 존재 이취일, 갈암 이현일 형제로 이어진다. 이 학통은 다시 갈암의 아들인 밀암 이재, 밀암의 외손인 대산 이상정, 소산 이광정으로 이어지고, 대산의 외증손인 정재 류치명, 학봉의 후손인 서산 김홍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영남학파의 학통을 잇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장홍효이다. 선생은 위로는 학봉 선생의 학통을 잇고 아래로는 많은 제자와 문인을 길러내 영남 유학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경당의 학문은 한결같이 명예와 이익을 멀리하고 임천에 숨어 책을 읽고 궁리하였으며, 책상머리에는 항상 커다랗게 敬자를 써 붙이고 그것으로 생활의 바탕을 삼았다. 선생은 언제나 첫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가묘에 참배했다. 그리고 주자의 화상을 배례하고 난 후 서실에 단정히 앉아 종일토록 독서하고 사색 궁리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꼬박 뜯눈으로 밤을 밝혀 탐구했다. 선생이 거처하는 집 남쪽에는 아름다운 천석(泉石)이 있고 커다란 바위가 있어 제월대(雲月臺)라

이름 짓고, 배우는 젊은이와 더불어 이 곳을 거닐며 예를 익히며 사색에 잠겼다. 그는 좀처럼 성내(城內)에 가는 일이 없었고 이웃 마을조차 찾지 않으면서 자연을 벗삼아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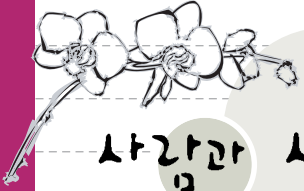
선생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책 읽는 것은 그것을 배게 하여 생활에 옮기게 함으로써 값이 있게 되고 소중함이 있는 것이니 그렇지 못하면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라고 훈육하였다. 또 이르기를 “사람이 도리를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며, 처음으로 학문연구에 뜻을 둔 선비에게는 “오늘 한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며, 오늘 한가지 사물을 관찰하고, 내일 한가지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며 깨치게 되면서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 가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일, 행하는 일이 쌓이게 되어 크게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 반드시 환하게 꿰뚫어 통하게 될 것이다”라 했다. 또 이르기를 “공부는 남이 보지 않은 곳에서 조심함을 으뜸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또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 이 고 익혀지지 않으면 거짓된 공부가 될 뿐이다”라 했다. 이와 같이 충후(忠厚)와 성실(誠實)을 바탕으로 경(敬)의 학문을 중시하여 선생은 자신의 아호를 경당(敬堂)으로 불렀다.



광풍정 뒤로 올라오면 커다란 절벽 위에 제월대가 있다. 이곳에 올라앞을 내다보면 마을이 저멀리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평가(安東의古家)

경.당.종.택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곳..

가만히 하룻밤 안기고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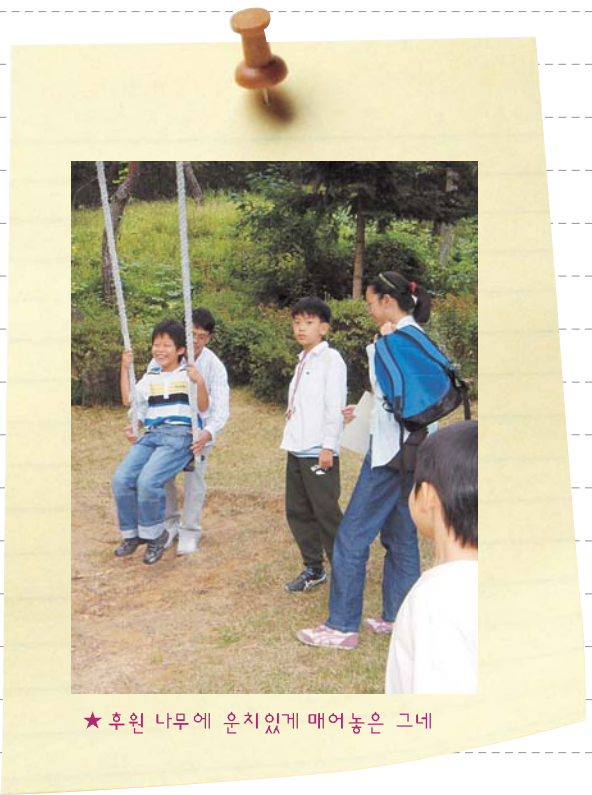
★ 그네에 앉아 바라본 전경

★ 이곳은 <음식디미방>을 지으신 정부인 장씨의 친정으로 단체로 예약시 계절에 맞는 다양한 전통 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경당종택

방수 4개
수용인원 20명



★ 후원 나무에 훈치있게 매어놓은 그네



어느 쪽이로도 기울어지지 않기는
큰 산과 같을 곳

高小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56호 |

고산서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가(安東의 古家)



고.산.서.원



- 소재지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34 번지 외 3필
- 전 화 : 054-859-6656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고산서원은 1985년 10월 5일 경상북도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었다. 1789년(정조 13)에 이상정(1710~1781)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지방 사람에서 건립하였다. 이상정이 학문과 후진 양성을 위하여 1768년(영조 44)에 창건한 고산정사터에 자리잡고 있다. 창건된 이후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고 그 이후에는 향사만 지내왔다. 1977년 고산정사와 백승각을 보수하고, 1984년과 1985년에 강당인 호인당, 묘우인 경행사, 동재를 중수하였다. 1985년부터 유림의 공의로 이상정의 아우인 이광정을 배향하고 있다. 안동의 암산유원지 뒤편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추었다. 경내에는 경행사·호인당·양지재·백승각·전사청·고산정사·향도문·주사 등 9동의 건물이 있다. 경행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이익공집이며, 풍판이 설치되어 있고, 처마는 겹처마로 단청이 되어 있다. 내부에는 이상정과 이광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고산서원은
1985년 10월 5일 경상북도기념물

앞으로는 붉은 석벽이 병풍처럼 쳐져있고
그 사이로 미천(眉川)이란 시냇물이 흘러간다.

호인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서 10칸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에 명성재라는 현판이 걸린 2칸짜리 방이 있고 나머지 8칸은 마루이다. 서원 행사 때 유림의 공론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전사청은 향사 때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동재인 양지재는 제관들이 숙소로 사용한다. 서재인 백승각에는 서원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향도문은 향사 때만 집사들의 출입문으로 사용된다. 양지재와 백승각의 양끝은 개방된 마루가 있어서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동·서쪽에 3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뜰에는 정로대가 2기



고산서원 첫 입구에서 만나는 소나무 숲

고.산.서.원

설치되어 있다. 이 정로대는 일명 불만침대라고도 하며 서원행사 때 그 위에 관솔불을 지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이 서원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해마다 3월과 9월에 제사를 지낸다.

이상정은 이색의 15대손으로서, 25세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형조참의 등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고,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여 성리학을 연구하고 노년에는 후진양성에 전념하여 문인 록에 오른 제자만도 273명이나 되었다.

고산서원 앞으로는 붉은 석벽이 병풍처럼 치저있고 그 사이로 미천(眉川)이라 이름한 시내가 흐른다. 대산 선생은 이 풍광을 고산잡영(高山雜詠)으로 노래 했는데 이는 퇴계 선생이 남긴 도산서원 주변의 풍광을 노래한 계산잡영(溪山雜詠)과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흡사하다.

경행사에서 나오면서



이 서원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해마다 3월과 9월에 제사를 지낸다.

중정지도(中正之道) 대산 이상정*

대산 이상정 선생은 '소퇴계(小退溪)'라 불리울 만큼 퇴계 선생의 삶처럼 많은 저서와 많은 제자를 남긴 학자로 유명하다. 대산은 문집을 52권 27책 구성했다. 목판으로는 2,157판에 달하는 양이다. 물론 문집을 그 양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세책의 문집을 남긴 것을 고려한다면 그 양은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산 선생은 한산 이씨 종가가 있는 소호리와 지금의 고산 서원 일대를 무대로 거대한 학단(學團)을 꾸렸다. 대산 선생의 제자 가운데 호문삼로



서재엽 담장이 이쁘게 눈에 들어온다



고.산.서.원

협문

(湖門三老 ; 李宗洙, 鄭宗魯, 金宗德) 또는 호문삼중으로 불리는 학자들이 학단을 이끌었다. 대산 문하의 대표적 학자인 후산 이종수, 동암 류장원, 천사 김종덕, 입재 정종로의 저술과 삶을 살펴보면 스승과 너무나 닮아있다. 이들 제자들이 스승과 다른 점은 문과에 급제하지 않았다는 정도일 뿐이다. 이들은 모두 대산 문하에서 수십 년을 한결같이 진리 탐구와 예학 연구에 몰두했다. 대표적 저작물이 영남 예법의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변통고(常變通攷)>다. 상변통고는 30권 16책이나 되는 방대한 저작물로 동암 류장원이 주자가례의 체제에 준해서 상례(常禮)와 변례(變禮)에 대한 제설(諸說)을 참조해 편찬했다. 이들 대부분 편저 또는 단편





적인 글로 예설에 관해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상변통고는 대산 문하 학자들의 공동 연구서며 그간 논의해온 예설의 중간 보고서로 판단된다.

현재 종가와 고산서원에 있던 많은 서책과 고문서 약 4,000여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

대산 이상정 선생은 퇴계 선생과 마찬가지로 벼슬에 나아가기보다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몰두했다. 실제로 선생이 관직에 있었던 기간은 6,7년에 불과하다. 벼슬에서 물러나기 위한 10여 차례의 상소가 이러한 당시의 정황과 의지를 잘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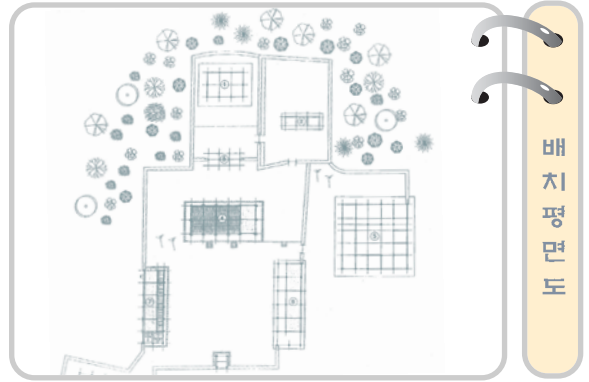


안동 근교의 서원중 풍광은 단연 으뜸이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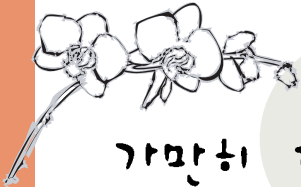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가(安東의古家)

고.산.서.원



배치평면도



가만히 하루밤 안기고픈...

★ 고산서원 전체 대여시 400,000원 입니다.



호인당

수용인원(7-8명), 전기온돌
8만원



동제 큰방

수용인원(7-8명), 전기온돌
8만원



동제 작은방

수용인원(5-6명), 전기온돌
6만원



서제1

수용인원(2-3명), 전기온돌
4만원



서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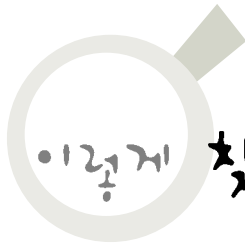
수용인원(2-3명), 전기온돌
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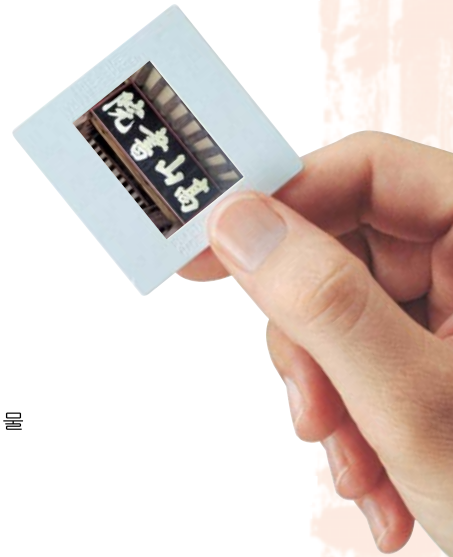
★ 체험 안내

· 한지공예, 천연염색, 탈만들기체험, 놀이체험, 전통예절체험, 전통문화체험 가능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가용 이용시

안동에서 일직방면으로 가다가
암산유원지 뒷편솔숲 사이로 보이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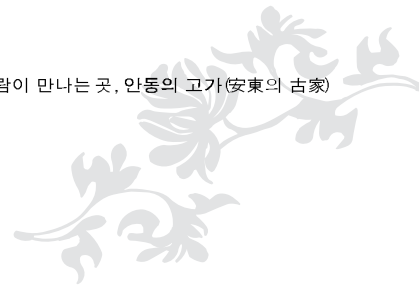


固城李氏

밭아래아름다운

호수를 끌어안아

塔洞波宗宅



중요민속자료 제 185호

고성이씨 탐동파 종가

고.성.이.씨.탐.동.파.종.가



- 소재지 : 안동시 범흥동 9-2번지
- 전 화 : 054-859-1149
- 관리자 : 이호근(010-2804-8700)
- <http://www.tapdong.com>



고성이씨 탐동파 종택은

조선 숙종 때 좌승지로 증직된 현소유자의 12대조인 이후식(1653~1714)이 안채를 건립하고 사랑채를 건축하던 중 완성하지 못한 것을 그의 손자 원미(元美)가 완공하여 대청 영모당(永慕堂)을 함께 건축했다. 영모당은 발 아래 마련된 아름다운 호수와 멀리 바라보이는 낙동강을 그대로 안고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다우며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탐골 종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영모당, 정자, 연못, 외양간 등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창한 숲이 우거진 야산과 정자 앞을 흐르는 계류 등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건물을 배치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청 북쪽에서 약 1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북정(北亭)은 소유자의 8대조인 진사 이종주가 영조 51년(1775)에 건립했다.

탐동파 종택은 초석을 돌로 높이 쌓은 축대 위에 지어진 중문간을 들어서면 사각형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안채의 왼편에서 앞쪽으로 사랑채가 있고,

마루방에는 '정우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조선 중기 양반집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으로 특히 주변의 자연환경과 건물을 잘 조화시킨 독특한 구조와 수법 등 전통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전통주택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 중기 양반집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곳

안채는 정면 8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잡석으로 축대를 높이 쌓은 후 자연석 주춧돌을 놓고 각주를 세웠다. 안채 정면으로 자리 잡고 있는 8칸의 대청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대청의 전면은 외부로 개방되어 있으며, 우측에 골방과 안방이 4칸 길이로 마당 쪽으로 돌출되어 있다. 또 그 앞에는 부엌 2칸을 내달아서 앞채에 부속시키기도 하였다. 사랑채는 별채 형식



고.성.이.씨.탑.동.파.종.가

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2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2칸 크기의 마루방과 온돌방 2칸이 합해진 4칸 가옥으로서, 마루방을 중심으로 3면에 쪽마루를 돌리고 난간을 설치하여 사랑채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종택은 뒤곶의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야산과 북정 앞을 흐르는 계류 등의 자연경관을 잘 살려서 건물을 배치, 연못과 화단 등을 곁들여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간저택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집을 지을 당시 전해지는 신비한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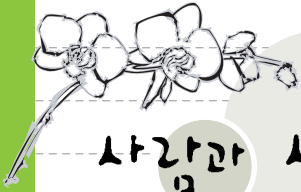
이 집의 집터를 잡고 안채를 짓기 시작할 때의 일이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절을 허물고 절에 살던 중들과 불상들을 낙동강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면 버렸던 불상들이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또 낙동강에 불상들을 버리면 또 제자리에 와있고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어렵사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어느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와 현몽하여 이르기를 “이 집은 나의 집터인데 왜 나를 몰아내고 네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자손들을 잡아가리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분은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집 짓는 일을 중단하고 탄식 중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셨는데 당시 여덟 살이던 손자가 매우 총명하고 매사에 의욕이 넘쳤다고 한다. 집공사를 중단한다고 탄식만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용기를 북돋우는 어린 손자에 힘입어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날 밤 그분의 꿈에 다시 부처님이 현몽하여 “손자의 생기와 효심에 여기에 집을 짓도록 허락하니 추후에라도 부처님을 잘 받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탑동과 종가앞에는 신세동 칠층전탑이 있는데 원래 이 종가터에 법흥사라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에 대한 탄압정책으로 폐허가 되고 그 자리에 유교문화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설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평가(安東의古家)

고.성.이.씨.탑.동.파.종.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곳..



★ 공연/놀이 안내

국악공연프로그램 (풍류음악회)
하회탈춤공연 및 놀이

★ 체험 안내

다도, 도예, 한지공예, 천연염색,
택견, 천렵놀이, 서당, 민속놀이,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 썰매타기, 팽이치기, 장작패기, 군불때기, 캠프 파이어, 숯불 바비큐(사전예약) 등 다양한 놀이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놀이는 계절에 영향을 받습니다.)

★ 집 앞에는 국보 제16호인 신세동7층전탑이 있고, '영모당' 앞의 연못은 맑은 계곡물이 유입되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있어,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겨울에 연못이 얼면 썰매타기나 팽이치기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안동시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하면서도 조용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안동의 고택(安東의古家)

고.성.이.씨.탑.동.파.종.가



가만히 하룻밤 안기고픈...

- ★ 고방을 개조 하여 수세식 화장실 (좌변기)과 샤워실이 설치 되어있어 불편함이 없고, 난방은 아궁이와 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면 바베큐 시설이나 캠프 파이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등절기(11월~2월)는 난방용 땀감과 보일러 사용으로 인해 추가금액(1만원)이 발생합니다.
- ★ 인원 추가시 1인/1만원이 추가됩니다.
- ★ 체험 프로그램 선택 및 예산 협의 문제로 인하여 전화예약만 받습니다.



문간방 1·문간방 2

4만원(2인 기준)



영모당·정우재·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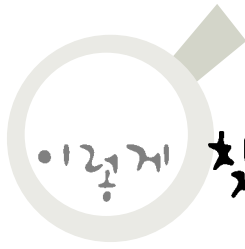
10만원(4인 기준)



★ 식사안내

- 아침식사 제공 가능(요금 별도 : 1인 5000원)
- 안동한우 바베큐, 안동찜닭(사전 예약, 전화문의)





이렇게 찾아주세요



자가용 이용시

안동시 법흥동 고가도로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약 300미터

대중교통 이용시

안동역, 버스터미널에서 3번 버스 신세동7층전탑 하차



자연을 벗삼아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